로컬플러스

부안군, 신운천 공사장 안전점검

부안군이 국가안전 대 진단 기간을 맞아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관내 주요 공사장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노점 홍 부군수와 해당 실과소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 30호선과 연결하는 신 재생에너지 우회 진입도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등 관내 주요 공사장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지난 2월 1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민간시설물과 공공시설물, 교량・하천・대형공사장 등 급경사지 및 절개지 등 안전관리대상 7개 분야(수자원, 에너지분야 등)에 대한 안전 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군민들의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을 높여 군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여성공무원 맞춤형 교육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22일부터 23일까지 여성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맞춤형 위탁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8일 실시한 간부공무원 위탁교육은 간부공무원으로서 위기관리 능력 및 갈등상황 대처능력 함양과 새만금방조제 부근을 현장견학 함으로써 새만금중심도시 김제시 공직자로서의 주인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번에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위탁교육은 새만금시대에 발맞추어 품격있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 등을 쌓기 위한 강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총 634p 통계연보 발간

정읍시는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지정) 5항의 규정에 따라 「제21회 정읍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ㅎ위해 발간한 이번 통계연보 작성기준은 2014년 12월 31일이다.

통계연보는 최근 5년(2009년부터~) 자료와 연계해 정읍시의 연혁과 토지, 인구, 주택, 교육, 교통, 사업체 현황 등 16개 분야 261개 항목에 대한 주요 통계를 담고 있다.

각 분야별 발전 추이와 현황이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리돼 있어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은 정책수립과 기업경영 및 교육, 학술연구 등 사회 전반의 필요한 기초자료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총 634페이지 분량으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 정읍시민 뿐만 아니라 정읍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도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발급

김제시 농업정책과(과장 서상원)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과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생바우처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생생바우처카드는 매년 신청에 의해 발급하며,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을 스포츠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미용재료,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경기장, 서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길곶 봉수대' 긴급발굴조사

새만금의 최중심 김제 심포리 위치… 훼손 심해 복원 시급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봉화산의 정상에 위치하여 멸실 위기에 처해졌던 '길곶 봉수대'가 긴급발굴조사를 통하여 되살아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서해안의 곡창지대 방어를 담당하고 연기를 피워 전시상황 등 비상시에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연락을 취했던 '심포리 길곶 봉수대'는 현재 새만금일원의 최중심에 위치하여 봉수대에 오르면 전면부는 새만금 전체를 조망하고 후면부는 김제 만경평야가 조망되는 최적의 요지에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봉수대는 기초부를 제외한 거의 모두 훼손되었으며 산정상부에 위치하여 산사태등으로 인한 멸실등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김제시는 구체적인 규모나 축조방식, 역사성등을 하루 빨리 밝혀야할 필요성을 인식, 문화재청에 긴급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발굴조사비용 전액을 확보하여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술발굴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대한 새만금구역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역사문화유적의 보존과 이를 연계한 관광자원화의 방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길곶봉수대'의 발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비・복원까지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의 경우 옛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조화롭게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켰을 때 새만금 또한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 말했다.

/김제 =곽노태 기자

사랑기술봉사단은 임병택 건축과장 등 5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읍사랑기술봉사단 발대 본격 활동

11월말까지 소외계층 대상

정읍시건축사협회와 함께 불우소외계층에 따뜻한 사랑을 전해오고 있는 정읍사랑기술봉사단(이하 사랑기술봉사단)이 지난 1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입암면 하부리 평암마을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 정읍시건축사회 정수화환회장과 봉사대원, 평암마을주민 등 1백 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발대식후 참석자들은 마을안길 200M 담장도색과 불우소외계층 8세대에 대한 도배・장판교체와 함께 전기수선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 봉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4개조로 나눠 오는 11월 말까지 소외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봉사단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비 등의 경비는 매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정읍건축사회에서 후원하는 경비로 충당하게 된다.

사랑기술 봉사단은 지금까지 불우세대 주택보수 237세대와 축산농가 재해현장 합동안전점검 225세대 등 모두 462세대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왔다.

사랑기술봉사단은 임병택 건축과장 등 5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각자 본연의 업무 외에도 휴일을 이용, 각자의 기능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해오고 있다. 지난 2005년 발족이후 현재까지 불우세대 주택보수 257세대, 축산농가 재해현장 합동안전점검 225세대 등 총 482세대에 따뜻한 손길을 전해왔다.

한편 발대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매월 두 차례씩 남들이 쉬는 휴일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도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보다 더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 =김대환 기자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에서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DVD 동영상과 레이저쇼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읍 내장산워터파크, 4월부터 시범운영

5월부터 본격 가동

정읍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가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시는 "봄 관광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봄 분위기와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내달 2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악분수는 당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5시에 30 분씩 1개월간 시범운영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본격 가동된다.

운영기간에는 매일 저녁 2회 (8시, 9시) 에, 공휴일은 4회 (오후 2시, 5시, 8시, 9시에) 운영된다.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DVD 동영상과 레이저쇼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단, 매주 월요일은 시설물 정비를 위해 공연하지 않는다. 또한 우천 시나 낙뢰, 강풍이 있는 날도 가동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내장산 워터파크 내 야외 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공연 외에도 인라인 스케이트와 보드 자전거 등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야외 공연장을 찾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분수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실과 광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이용과 관람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정읍 =김대환 기자

부안제일교회 성전 신축

지하 1층 지상 4층 완공후 문화공간 개방

부안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안제일교회(담임목사 김성식)가 낡고 오래된 교회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2천800백 평방미터 규모의 성전을 신축한다.

지난 20일 부안읍 당산로 55-5번지 현지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임기태 부안군의회 의장, 현지 주민, 교인, 공사관계자 300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 예배를 갖고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갔다.

부안제일교회는 이날 교회 인근 주민들을 초청하여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공사기간동안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으며 참석 주민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부안제일교회는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의 쉼터와 어르신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하여 누구나 친근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 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